

#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

## - 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

이 양호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의 성경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주석은 한없는 은혜를 준다. 종교개혁가들의 주석을 성경연구와 설교를 위해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칼 바르트를 방문했던 한 제자가 그의 책상 위에 있던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제자가 그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바르트는 그 책을 자신의 영감의 삶이라고 했다고 한다. 바르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이다.

### 1.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의 특징

기독교역사를 초대·중세·종교개혁·현대로 나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의 특징은 역사적 해석이라 는 것이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신학자들의 해석방법은 우화적 해석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화로 본 것이다. 우화로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이다. 현대의 진보적 신학자들은 창세기 1-3장을 신화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우화로 본 것도 아니고 신화로 본 것도 아니고 역사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독특성이다.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콜러리지라는 신학자가 있다. 슬라이에르마허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콜러리지는 영국의 슬라이에르마허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콜러리지는 성경은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개혁가들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칼빈은 설교에서 응용이라는 부분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라고 응용을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서를 역사로 보고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서연구 역사에서 종교개혁가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다음에서 창세기 1-3장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상호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한다.

## 2.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루터 : 지금의 천지가 아니라 “crude and formless masses”를 가리킨다. 이 “primary matter”는 제 1일에 창조되었다.

칼빈 : 처음에는 세계가 지금처럼 완전하지 않았다. “it was created an empty chaos of heaven and earth.”

## 3.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Elohim)로 사용되었는가?

루터 :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된 데 대해 여러 가지 궤변을 말한다. 그러나 Moses “wants to hint at the Trinity or the plurality of Persons in one single divine nature.” “Therefore the feeble sophistry of the Jews is unacceptable, that the plural number is made use for the sake of respect.”

칼빈 : 어떤 사람은 여기서 三位를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가 없다. 그들은 아리우스주의에 반대하다가 사벨리우스주의에 빠진다.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의 신”(Spirit of Elohim)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If we suppose three persons to be denoted, there will be no distinction between them.” 만약 Elohim을 三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the Spirit is not of the Father, but of himself”가 될 것이다. “For me it is sufficient that the plural number expresses those powers which God exercised in creating the world.”

#### 4.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루터 : 암탉이 계란을 품어 따뜻하게 하여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성령이 물을 품어 그 실체들에 생명을 주신다. “It is the office of the Holy Spirit to make alive.”

칼빈 :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킨다. 창조된 덩어리를 지탱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음을 가리킨다. “this mass, however confused it might be, was rendered stable, for the time, by the secret efficacy of the Spirit.” “the Spirit moved and agitated itself over the waters, for the sake of putting forth vigours; or that He brooded over them to cherish them”

#### 5.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무슨 빛인가?

루터 :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으며, 이 빛은 태양처럼 움직였다. “the present daylight is, ... a crude and coarse mass of light if it is compared with the future light, so that first light was crude when compared with this present light.”

칼빈 : 이 빛이 태양이나 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 6.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 대하여

루터 :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

칼빈 :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산 방법만을 인정하였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다.

#### 7. 왜 제 2일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고 제 3일에는 그 말씀이 두 번 나오는가?

루터 : 리라(Lyra)는 제 3일에 제 2일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제 2일에는 그 말씀이 없고 제 3일에 두 번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Nor let us rashly reach a conclusion as to whether the work of the second day was brought to a close on the third day or not.”

칼빈 : 제 2일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다. 제 3일에 지상의 물이 모아지기까지는

유익한 점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 8. 창세기 1장 11-12절의 식물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창조의 시기는 봄인가 가을인가?

루터 : 열매가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 가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물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꺼번에 열매가 열게 하셨다고 볼 수 있다. “Therefore we declare that it was miracle of the first world that suddenly all these plants came into existence in such a way that the earth sprouted and the trees bloomed, and suddenly also fruits followed.” “it is very likely that it was spring when the world took its beginning.”

칼빈 : 이 문제는 다루지 않음.

### 9. 제 1일의 빛과 제 4일의 태양, 달, 별들의 빛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루터 : 제 1일에 창조된 빛이 제 4일의 창조물들에 의해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제 1일에 창조된 빛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태양에 의해 희미해졌다고 한다. “Both may be true, namely, that the first light remained and yet was the seed, as it was, of the sun and the moon.”

칼빈 : “the light was before dispersed, but now proceeds from lucid bodies.”

### 10. 창세기 1장 16절에서 “두 큰 광명”을 태양과 달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이나 달보다 더 큰 천체는 없는가?

루터 : 모세는 태양과 달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빛의 크기를 말한 것이다. “The fact that the astronomers debate about the size of these bodies really has nothing to do with this passage.” “the astronomers are the experts from whom it is most convenient to get what may be discussed about these subjects.”

칼빈 : 여기서는 태양과 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밝게 비추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모세는 두 개의 큰 발광체를 말한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결정적인 이유들에 의해 토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게 보이지만 달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모세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식에 젖은 평민들

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대중적인 문체로 썼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인간 정신의 지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큰 노력으로 탐구한다.” “이 연구를 거부해서도 안 되며 또한 이 과학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 천문학은 알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유익하기도 하다.”

#### 11. 창세기 1장 20절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루터 : 하나님의 물에서 새들과 물고기들이 나오게 하셨다. 새들과 물고기들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근원은 동일하다.”

칼빈 : “Why should it not be lawful for him, who created the world out of nothing, to bring forth the birds out of water?”

#### 12. 창세기 1장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루터 : “The mother of all these, he says, is the earth, which brought them forth out of itself through the Word, just as the sea brought forth fish.”

칼빈 :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생물을 내신 것은 큰 기적이다.

#### 13.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는 무슨 뜻인가?

루터 : 유대인들은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포함하여 천사, 땅, 다른 피조물을 지칭한다고도 하며, 제후들의 관습에 따라 복수로 쓴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칼빈 :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구나 천사들과 의사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거나, 당시의 방백이나 왕들의 표현법을 따라 복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 14.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루터** :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 창조되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것을 가리킨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 있었다. “아담의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은 가장 순수하였다. 그의 지성은 가장 명석한 것이었고, 그의 기억은 최선의 것이었으며, 그의 의지는 가장 똑바른 것이었다.” “아담 안에는 조명된 이성,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과 자기 이웃을 사랑하려는 매우 진지한 욕망이 있었다.” 또한 아담은 동물과 풀과 과일과 나무와 기타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저 형상은 매우 탁월한 어떤 것인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공포로부터의 영속적인 자유, 선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하나님에 관한 매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들과 그리고 전체 천문학에 관한 가장 밀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동물들은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명명되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이미지이다.” 즉, “나머지 피조물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발자국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안에서, 특히 아담 안에서는 참되게 인식된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지혜와 정의와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불리우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죄 아래 있기 전 원의의 상태는 탁월한 상태였다. “만약 우리가 모세를 따른다면 원의는 인간이 육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영혼에 있어서도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이 심지어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의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아담은 “매우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즉시 하와가 자기 육체임을 인식하였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하였다. 그는 특별한 지각과 정직하지만 불완전한 의지를 부여받았다. (왜냐하면 완전은 육체적 삶 이후 영적인 삶이 오기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탁월한 상태에 있었다. “아담의 죄 이전에 그의 눈은 매우 예리하고 명료하였으므로 스라소니와 독수리의 눈을 능가하였다. 그는 사자나 곰보다 더 강하였다.... 아담이 음식물로 섭취한 과일들의 질과 아름다움은 지금의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아담은 과실만을 먹었을 것이다. “아담은 덜 좋은 음식인 각종 육류를 먹지 않았을 것이며, 땅의 맛 있는 과실들을 좋아하였을 것이다.” 인간이 낙원에 있었더라면, “출생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젖을 오랫동안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병아리들의 경우에 보듯이 아마 그들은 태어나자 마자 두 발로 일어섰을 것이며, 부모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들의 식물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 “죽음이나 다른 어떤 위험에 대한 공포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호의에 만족하였다.” 아담은 불도 물도 어떤 다른 불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훈련받은 개에게 명령하듯이 아담은 한 마디의 말로 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아

님은 한마디의 말로, 나아가서 한 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서 곰이나 사자를 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칼빈** : 형상과 모양이라는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히브리인들의 습관에서 온 것이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두 말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차이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참가된 것일 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로,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인데, 그들은 한 가지 것을 두 번 되풀이하여 표현한다. 다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말을 더욱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상스럽게 보인다. 그들은 ‘젤렘’ 즉 형상이라는 말을 영혼의 실체에 적용하고 ‘데무트’ 즉 모양이라는 말을 영혼의 성질에 적용하기도 하며 혹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 크리소스토ム은 형상을 지배력으로 본다. 그러나 지배력은 형상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 인간에 빛나고 있지만, 그의 형상의 본래의 자리가 영혼안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상 나는 우리의 외적 형태가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생물들은 땅을 내려다보도록 굽어져 있으나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늘을 응시하며 별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시키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강한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 이 외적 표지들 속에서 보여지고 번쩍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는다면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정신의 빛과 심정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가시적이었다는 점이다.”

## 15. 창세기 2장 2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말씀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루터** : 창세기 2장 2절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뜻이지 천지의 보존과 통치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다.

**칼빈** :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파멸된다.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는 것은 새 창조를 멈추셨다는 뜻이다.

## 16. 창세기 2장 8절의 애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루터 : 낙원은 “땅 가운데 보다 탁월하고 보다 더 좋은 부분이었다. 나는 이 정원이 홍수때까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의 파수로 그것을 지키셔서 그 곳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근접할 수 없었다. 후에 그것은 홍수에 의해 와해되고 말소되었다. 이것이 나의 견해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강은 갠지스강(비손), 나일강(기흔), 티그리스강(햇데겔), 유프라테스강을 가리킨다. 이 네 강이 본래는 한 근원에서 나왔으나, 홍수 때 지형이 바뀌어 오늘날처럼 되었다.

칼빈 : 애덴 동산은 공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었다. “Again, we infer, that this garden was situated on the earth, not as some dream in the air.” 애덴의 아들들이 티그리스강 부근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They who contend that it was in the vicinity of Mesopotamia, rely on reasons not to be despised; because it is probable that the sons of Eden were contiguous to the river Tigris.” 어떤 사람은 지구의 표면이 홍수에 의해 변모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땅은 태초에 창조된 것과 똑같다.

## 17. 창세기 2장 8절의 “생명나무”란 무슨 나무인가?

루터 : 인간은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충일한 체력을 가지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피곤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더욱이 이 생명 나무는 젊음을 영속적으로 지켜 주었을 것이다. 인간은 결코 노령의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이마에는 결코 주름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발, 손, 그리고 신체의 어떤 다른 부분도 허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과실들에 힙입어 인간의 생식력이나 모든 다른 일들을 할 능력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며, 마침내 인간은 육체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칼빈 : 생명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나무가 스스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18.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어떤 나무인가?

루터 :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아담의 교회, 제단, 및 강단이었다.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혹은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심겨진 그 장소는 아담이 자기 자손들과 함께 안식일에 모일 교회였을 것이다.” “이 나무가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치명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렇게 되도록 되었기 때문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였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과실을 맺었다. 그러나 금령이 내려져 있고 인간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독보다도 더 해로웠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과 국가가 있기 전에 교회의 설립을 본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설교는 제 6일에 있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이 명령을 필요로 하였다. 즉, 예배의 외적 형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외적 일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의로운 아담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후에 불의한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다.”

칼빈 :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한 것은 아담이 자신의 사리분별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지혜롭게 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완전한 지혜의 근원을 떠났을 때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 아담이 독립적이 되기를 원한 것이 자유 의지의 기원이다.

## 19. 창세기 2장 21절 “갈빗대 하나를 쥐하시고”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루터 : 창세기 2장 21절의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עַלְעֹלֶת**인데, 이것은 갈빗대와 옆구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와 살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외과 의사처럼 뼈와 살을 잘라 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칼빈 :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우화를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담은 갈빗대를 하나 잃었지만 인생의 진실한 반려자를 얻었으므로 보다 큰 보상을 받았다. 갈빗대를 쥐해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것이 필수적인 일이어서가 아니라 상호 유대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

## 20. 창세기 2장 24절 “아내와 연합하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칼빈 : 아내를 단수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일부다처제는 하나님의 제도에 크게 불일치한 것이다.

## 21.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겠는가?

루터 :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은 완결된 것이 아니었다. 아담은 육체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었다. “아담은 음식과 음료와 생식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숫자가 찬 후 예정된 때에 이 육체적 활동은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자손들과 함께 영원하고 영적인 삶으로 변환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삶의 활동들 - 먹는 것, 마시는 것, 생식하는 것 등등과 같은 - 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였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봉사를 욕망의 결함 (이것은 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없이, 죄 없이, 죽음의 공포없이 행하였을 것이다.” “아담은 이중적 삶, 즉 육체적 삶과 불멸의 삶을 지녔다. 하지만 후자는 아직 분명히 계시되지 않았고 다만 희망 속에 계시되었다.” 아담의 “이 육체적 삶 이후에 영적 삶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 영적 삶 속에서 아담은 물질적 음식도 사용하지 않고 현세에 있는 다른 일들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천사적, 영적 삶을 살았을 것이다. 성서에서 미래의 삶이 묘사된 것처럼 우리는 마시거나 먹지 않을 것이며, 어떤 다른 육체적 기능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인해 우리는 아담이 기다렸을 영적 삶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기다린다. “아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낙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았을 것이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저 안식에 들어갔을 것이다.” 현세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중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아담은 말하자면 중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아동의 무죄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사탄의 속임을 받아 재앙 속으로 타락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하였다. 그런 타락의 위험은 미래 영적인 삶에서 발견될 저 완전한 무죄성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영적인 상태와 아담의 무죄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칼빈 : 아담은 모든 면에서 행복하였다. 영혼은 건전하였고 신체에 있어서도 결함이 없었으므로 죽음을 완전히 벗어났다. “His earthly life truly would have been temporal; yet he would have passed into

heaven without death, and without injury”

## 22. 창세기 3장 1절의 뱀의 유혹은 언제 있었는가?

루터 : “또한 많은 학자들은 아담이 제 6일에 범죄하였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제 6일을 두 가지로, 즉 아담이 제 6일에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제 6일에 고난을 받은 것으로 기념한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 아담이 제 7일에, 즉 안식일에 범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도 사탄이 말씀이 가르치는 날인 교회의 안식일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도 모세에게서 확실히 입증될 수 없다.” 아담은 “언제 타락하였는가? 제 7일인가 아니면 다른 날인가? 확실한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제 7일에 타락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제 6일에 창조되었다. 마찬가지로 하와가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저녁 쯤, 아니면 제 6일의 끝 쯤에 창조되었다. 주님이 성별하신 제 7일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관한 명령을 내리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을 금하신다. 이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제 7일의 참된 목적이다.” “제 7일 일찍이 아담은 가정과 세계 문제의 영을 맡기시고 동시에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타난다. 사탄은 이 가장 장엄한 창조와 계획을 참을 수 없었다. 또한 사탄은 그런 위대한 축복, 즉 땅 위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고 그 축복된 육체적 삶 이후에 – 사탄 자신은 상실한 –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인간이 가진 것을 질투하였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이후 정오 쯤 사탄도 하와와 대화를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도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기의 사업을 한다.... 더욱이 본문이 명백히 기술하는 것처럼 그 날의 열기가 끝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담과 함께 그의 모든 후손을 죽음으로 정죄하셨다. 내가 분명히 믿기로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안식일에 일어났다.” “만일 어떤 사람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 ‘왜 당신은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까지도 주고 싶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칼빈 :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바로 그 날 타락했다는 주장이 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단이 안식일을 모독하기 위해 안식일까지 유혹을 연기했다는 추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나로서는 유혹의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할 근거가 없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받은 위엄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했다. 버나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무서운 타락이 낙원에서 일어났음을 읽을진대 우리는 이 거름더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23.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는가?

루터 : 하나님은 “On whatever day you will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라고 하셨다. 그러나 하와는 이 절대적 진술에 “Lest perchance we will die”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그것을 절대적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것이 결정적 잘못이다. “그녀는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넘어갔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화시켰을 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다.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이성에 만족하지 않고 악에 대한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하여 타락하였다.

칼빈 : “아담의 죄를 탐식에 의한 무절제로 간주하는 것(일반적인 생각)은 유치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과실을 먹지 않는 데 모든 미덕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만이 모든 악의 시초이었다고 선언한 것은 옳다. 사람이 야심에 의해 자기의 마땅하고 바른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본래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유혹의 본질에서 더욱 완전한 정의를 얻어야 한다. 여인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뱀의 속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였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 24.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루터 : 인간이 입은 옷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 준다. 인간은 사치해서는 안된다.

칼빈 : 하나님의 한 가지 본보기를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검소하고 값이 비싸지 않은 옷을 입도록 하신 것이다.